

John Miller

Imaginary Interventions

January 7 - February 25, 2023

Opening Reception: January 7, 5- 7 PM

Various Small Fires is pleased to present *Imaginary Interventions* by American artist John Miller (b. 1954, Cleveland, Ohio). This exhibition of nine new works on canvas plus a vinyl wall graphic will mark the artist's first solo presentation in Seoul. As an artist, writer, curator, and musician, Miller consistently tak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question, subvert, and reveal the nature of everyday life. Miller's most notable introduction to the Korean audience was through *Mannequin Lover*, male mannequin included in the 2010 Gwangju Biennale. By inviting the Biennale's curators and staff to dress the mannequin in their clothing, the artist investigated relationships that bind people to images and images to people.

Imaginary Interventions is a collection of photomontaged images photographed from various sites in the city of Berlin, specifically between the hours of noon and 2 pm. These works are an extension of the artist's *Middle of the Day* series, an ever-growing photographic archive of images of public and private spaces that Miller presents as 'socially produced sites.' In the VSF exhibition lumpy impastos of burnt sienna acrylic paint interrupt the otherwise nondescript photographic images. Brown impasto serves as a signature of sorts for the artist—a grotesque personal touch or index.

A city-specific architecture resembling a honeycomb with multiple courtyards in *Molar Multiplicities*, an abandoned discotheque with a dangling disco ball by the river in *The Chariot of Death* and an unrecognizable pathway leading to an unknown place in *Chimera*. From different shapes of circles and rows of squares to words like 'NO' in capitalized letters, Miller superimposes brown blocks of impasto over the printed image to imply an intervention in the photographic plane. In *The Reflection*, two different images are a digital integration that creates an illusion of a singular site. When seen up close, one comes to realize that the architectural still life is in fact a digital photo montage of multiple buildings. The not-so-subtle trompe l'oeil questions how one perceives certain spaces as given realities, which registers the premise of socially produced spaces.

The works embody both visual and conceptual references to the visual vocabulary rooted in a postwar-European dialect. The brown impasto in the lower bottom corner of *The Chariot of Death* faintly recalls Mondrian's grid compositions while creating a diversion from the austere verticality of the open metal fence. The brown rectangle standing upright in *Image of the People* is reminiscent of Richard Serra's *Tilted Arc*, the controversial monumental COR-TEN steel sculpture that bisected Foley Federal Plaza in Lower Manhattan. Simultaneously creating a compositional parallel to the tree on the left, it can be read as a capitalized sans serif 'I' standing in for the artist himself. Along with the 'I,' the unmistakable verbal gesture of rejection of the 'NO' in both *Absence* and *Chimera* has a visual resemblance to the quintessentially Californian text paintings of Ed Ruscha.

The conceptual lineage of Miller's works can be read as a form of a proposal of an imagined intervention, inspired by Claes Oldenburg's unbuilt public monuments, conceived at the end of the 1960s. As Oldenburg's proposals were monumental in scale but anti-memorial and impossible to build, Miller's works address the potentiality of an imagined space. As such, they are visual proposals that function as an intervention that lies between the realm of photography and painting, and the private self and public sphere.

John Miller (b.1954, Cleveland, Ohio) is an artist, writer, curator, and musician based in New York and Berlin. He received a BFA from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attended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Independent Study Program, and received an MFA. from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in 1979. Miller has had solo institutional exhibitions at Kunsthalle Bielefeld; Schinkel Pavillon, Berlin; Museum im Bellpark, Kriens;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Miami; Neuer Berliner Kunstverein; Museum Ludwig, Cologne; Kunsthalle Zürich; 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Geneva; Le Magasin, Centre National d'Art Contemporain, Grenoble; and the Kunstverein Hamburg. He participated in the 1985 and 1991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Biennials and the 2010 Gwangju Biennale. He has taken part in group exhibitions at the New Museum, New York; CAPC Musée D'Art Contemporain, Bordeaux; Museo Reina Sofia, Madrid; and MoMA PS1, New York. His works are in the permanent collections of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Art Institute of Chicago;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Miami; Walker Art Center, Minneapolis; Rubell Family Collection; 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Geneva; Stedelijk Museum, Amsterdam; Museum Ludwig and more. Miller's criticism has appeared in Artforum, October, and Texte zur Kunst. JRP and Les Presses du Réel have published compilations of his writing as *The Price Club: Selected Writings, 1977-1996* and *The Ruin of Exchange*. Miller is currently Professor of Professional Practice in Art History at Barnard College and Columbia University.



John Miller
Image of the People, 2022
 Inkjet print and acrylic on canvas
 29 7/8 x 39 3/4 in (76 x 101 cm)
 JM002



John Miller
Other Worlds, 2022
 Inkjet print and acrylic on canvas
 29 7/8 x 39 3/4 in (76 x 101 cm)
 JM005



John Miller
Molar Multiplicities 2022
 Inkjet print and acrylic on canvas
 29 1/2 x 39 3/4 in (75 x 101 cm)
 JM008



John Miller
The Reflection, 2022
 Inkjet print and acrylic on canvas
 29 3/4 x 31 7/8 in (101 x 81 cm)
 JM003



John Miller
Melancholic Memory, 2022
 Inkjet print and acrylic on canvas
 29 7/8 x 39 3/4 in (76 x 101 cm)
 JM006



John Miller
Chimera, 2022
 Inkjet print and acrylic on canvas
 29 7/8 x 39 3/4 in (76 x 101 cm)
 JM009



John Miller
Reterritorialization, 2022
 Inkjet print and acrylic on canvas
 29 7/8 x 39 3/4 in (76 x 101 cm)
 JM004



John Miller
The Chariot of Death, 2022
 Inkjet print and acrylic on canvas
 29 7/8 x 39 3/4 in (76 x 101 cm)
 JM007



John Miller
Absence 2022
 Inkjet print and acrylic on canvas
 39 3/4 x 29 3/4 in (101 x 75.5 cm)
 JM010

존 밀러

《상상의 개입》

2023년 1월 7일 - 2월 25일

오프닝 리셉션 1월 7일, 오후 5 -7시

베리어스 스몰 파이어스는 미국 작가 존 밀러(b.1954,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출생)의 《상상의 개입》을 개최한다. 아홉 점의 캔버스 작품과 벽면 비닐 그래픽 작업으로 이루어진 본 전시는 서울에서 열리는 밀러의 첫 개인전이다. 미술가이자 작가, 전시기획자, 음악가로 활동하는 밀러는 일상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이를 드러내고 전복시키는 작업을 실천하고 있다. 밀러는 제8회 광주비엔날레 (2010)에서 <마네킹 러버>를 통해 한국 관객에게 소개되었다. 당시 비엔날레 기획자들과 스태프들을 초청해 그들의 옷을 마네킹에게 입히는 설치 작품으로 관객과 이미지의 연결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상상의 개입》은 베를린 도심 전역에서 촬영한 특정한 장소들의 포토몽타주 모음이다. 작가가 정오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촬영한 '사회적으로 생산된 장소'로 제시하는 공공장소의 아카이브인 《미들 오브 더 데이 Middle of the Day》 연작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VSF 전시에서 선보이는 각 작품에 드러나는 특징은 짙은 적갈색(구운 시에나토)의 임파스토이다. 이는 사진의 이미지와 표면을 '방해'하며 일종의 그로테스크한 인덱스이자 밀러의 '개인적인 터치'로 작용한다.

<질적 다양성 Molar Multiplicities>의 베를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마당으로 이어진 별집 모양의 건축물, <죽음의 전차 The Chariot of Death>의 아직도 은빛 디스코 불이 달려있는 강변의 버려진 디스코테크, <키메라 Chimera>의 미지의 공간으로 이끄는 숲속 산책길은 밀러가 포착한 베를린의 모습이다. 각기 다른 이미지 위에 겹쳐진 밀러의 '흔적'은 원, 사각형, 혹은 대문자 '아니오(NO)'와 같은 단어로 나타난다. 이러한 포토몽타주 기법은 사진의 평면성에 개입하는 작가의 적극적인 제스처이다.

<상 The Reflection>에서는 두 개의 다른 건물과 배경이 단일한 장소처럼 보이도록 결합된 디지털 이미지이다.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면 각 풍경이 여러 건물의 단면으로 만들어진 포토몽타주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명백한 눈속임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공간에 대한 감상자의 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의 개념과 연결된다.

밀러의 작품들은 전후 유럽의 조형적 언어의 시각 및 개념적 접근을 구현한다. <죽음의 전차 The Chariot of Death>의 오른쪽 하단의 짙은 적갈색 임파스토는 금속 울타리의 수직선에서 몬드리안의 그리드를 연상시킨다. 또한, <사람들의 이미지 Image of the People>의 세로로 긴 직사각형 임파스토는 리처드 세라의 문제적 작품 <기울어진 호 Tilted Arc>를 상기시킨다. 이는 맨해튼의 폴리 언방 플라자 중앙에 설치된 코르텐 강철로 광장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치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으로 논란을 야기한 작품이다. 이와 더불어 화면 왼편의 나무와 평행 구도를 이루는 대문자 산세리프체의 '나(I)'는 밀러 자신을 가리키는 기표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부재 Absence>와 <키메라 Chimera> 에서 모두 등장하는 'NO'는 명백한 거부를 뜻하는 언어적 제스처로 미서부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에드 루샤의 텍스트 그림과 시각적 유사성을 갖는다.

밀러의 작업의 개념적 계보의 기원은 1960년대 말에 구상된 클라스 올든버그의 반-기념비적이고 실존하기 어려운 공공 구조물 설립 프로젝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올든버그의 작가적 상상의 개입을 통한 시각 및 개념적 제안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밀러의 포토몽타주 작업 또한 사진과 그림의 영역, 그리고 사적 및 공적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틈에 대한 시각적 상상의 개입이자 상상의 공간의 잠재력을 다룬다.

존 밀러 (b.1954,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는 뉴욕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가이자 비평가, 큐레이터, 음악가이다. 1977년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학사 학위 수여 후 휘트니 미술관 인디펜던트 스터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 후 1979년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그의 주요 개인전은 독일 빌레펠트 쿤스트할레, 베를린 싱켈 파빌리온, 신 베를린 쿤스트페어라인, 쾰른 루드비히 뮤지엄, 스위스 취리히 쿤스트할레, 벨파르크 뮤지엄, 제네바 현대미술관, 프랑스 그레노블 르 매가진 현대미술관, 미국 마이애미 현대미술관 등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더불어 휘트니 비엔날레 (1985, 1991)와 광주 비엔날레 (2010)에 참여한 바 있다. 뉴욕 뉴뮤지엄, 보르도 현대미술관, 마드리드 레이나소피아 국립 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PS1 등에서 개최된 그룹전시에 참여하였다. 밀러의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마이애미 현대미술관, 미니애폴리스 워커 아트센터, 루벨 컬렉션, 제네바 현대미술관,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루드비히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있다. 그의 비평 저술은 <아트포럼>, <옥도버>, JRP와 현대출판사(Les Presses du Réel)에서 펴낸 <더 프라이스 클럽 선집: 1977-1996>과 <교환의 붕괴> 등이 있다. 밀러는 현재 뉴욕 컬럼비아 대학 소속 바너드 칼리지에서 미술사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Various Small Fires(VSF)는 2012년 에스더 김 바렛(Esther Kim Varet)에 의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설립되었다. 갤러리 이름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작가인 에드 루샤(Ed Ruscha)의 대표적인 사진집 <다양한 작은 불꽃들과 우유 Various Small Fires and Milk> (1964)에서 가져왔다. 라이터의 불꽃, 타오르는 신문, 불타는 성냥, 담뱃불, 성화 등 16장의 불을 주제로 한 사진집처럼 세상을 밝히는 다양한 불이 되고 싶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10년간 VSF는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신인 작가와 중견, 원로 작가들을 소개하며 LA 미술계의 촉매자 역할을 해왔다. 또한, VSF는 사회적 책임과 환경 문제를 실천하고 있다. 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작가 절반이 여성으로, 여성작가들이 활동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LA 갤러리 공간은 100%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고 일상적인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등친환경적인 갤러리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VSF 서울은 새로운 문화 공간인 한남동 독서당로에 자리 잡아 2019년 4월 1일에 개관했다. 서울 지점 개관전으로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두 작가, 빌리 알 뱅스턴(Billy Al Bengston)과 에드 루샤(Ed Ruscha) 2인전을 개최했다. 그 외에도 조슈아 네이션슨(Joshua Nathanson), 매스 배스(Math Bass), 리즈 매직 레이저(Liz Magic Laser), 조쉬 클라인(Josh Kline), 지나 비버스(Gina Beavers), 체 러브레이스(Che Lovelace), 사라 안티스(Sara Anstis), 더 해리슨 스튜디오(The Harrison Studio), 디드릭 브라켄스(Diedrick Brackens) 등 개인전을 통해 여러 작가들을 소개했다. VSF는 세계적인 갤러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펜데믹을 함께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뉴욕 살롱 94 (Salon 94)와 첫 번째 협업전시에서 시작으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카르마 (KARMA); 브뤼셀, 뉴욕, 베벌리 힐스의 클리어링 갤러리(Clearing Gallery); 파리 하이아트(High Art); 로스앤젤레스 나이트 갤러리 (Night Gallery); 샌프란시스코 제시카 실버맨(Jessica Silverman)등과 협업 전시를 진행했다. 앞으로 VSF를 발판삼아 서울과 로스앤젤레스가 더욱 친밀해지고 국내외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에스더 김 바렛 (Esther Kim Varet)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예일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수학했다. 그는 뉴욕에서 경험을 쌓은 후 LA에 자신의 갤러리를 열었다. 지난 10년간 LA 미술계에서 자신만의 미학으로 갤러리를 운영해 온 경험을 살려 2019년 4월 서울 지점을 열었다. 2022년 4월, VSF는 텍사스주 델러스에 세 번째 지점을 개관하였다.

문의는 info@vsf.la / 070 8884 010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